

다산포럼



이남 주
성공회대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미·중 관계는 중대한 전환점에 진입했다. 하반기에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가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성사되면 트럼프 임기 동안 양국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성사되지 않으면 더 본격적인 힘겨루기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는가에 따라 세계질서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4월 초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로 시작된 미·중 관세 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진입한 이후인 6월 5일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 통화에서 시진핑은 트럼프를 중국에 초청했고 트럼프도 답례로 시진핑을 미국에 초청했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 이후 트럼프는 여러 차례 ‘올해 안’에 시진핑과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방중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하고 성과를 만드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시진핑도

미·중 정상회담은 성사될 것인가

2027년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정상회담과 관련한 준비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징후도 있다. 미국에서는 주요 기업가에게 트럼프의 중국 방문 시 동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최근에는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의 중남미 수교국 방문 시 미국 경우 요청을 미국 정부가 거부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라이칭더가 경유를 이유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올해 안 미·중 정상회담은 물 건너 간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중국 측의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7월 30일 공산당 정치국 회의의 20기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10월에 개최하기로 한 결정에 정상회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듯하다. 10월 중순 혹은 하순과 같이 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데, 10월로 발표한 것은 회담 여부에 따라 구체적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전후에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우선, 지난주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마무리된 데서 확인되듯이 양국 사이의 무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마·중은 24%의 추가적 보복관세를 90일간 유예한 상태로 무역협상 타결 전에는 관세전쟁이 언제든지 재개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펜타닐 관련 추가관세(20%)의 취소와 추가 제재조치의 중단을 요구하고,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조치와 희토류 수출 통제 폐지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한 휘발성이 높은 지정학 문제도 잘 관리되어야 한다. 중국은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에 러시아와의 협력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 두 현안에 대한 이견은 언제든지 미중관계를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있다.

회담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도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현안이 어느 정도 해결된 뒤에 정상회담에 나서려고 하는 반면 트럼프는 회담에서 즉흥적으로 새 요구를 내놓고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선호한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더 적극적으로 연내 방중 가능성을 흘리는 반면 중국 측에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의 힘겨루기 국면은 마·중 경쟁이 승패가 곧 결정되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양국관계에서 단기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증가하더라도 연내 정상회담을 위한 모색은 계속될 것이다. 그 점에서 APEC 정상회의는 그 이후 세계질서 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주최국으로서 한국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이고 세계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도 미중관계가 현재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안정화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용외교에 큰 도전인 동시에 큰 기회이다.

社說

광주 상습 침수지역 근본적 대책 마련 절실

광주시내 대표적인 상습 침수지역인 신안동 일대가 2주 사이에 두 번의 물폭탄으로 상가와 주택이 초토화 되는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완전 복구도 안 된 상태에서 물난리가 덮쳐 망연자실한 상태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서방전 범람이 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7일 간격을 두고 두 번의 극한호우에 신안동 일대가 범람한 것은 투명 홍수 방어벽이 오히려 물빠짐을 막은 탓이 크다. 광주시는 2023년까지 신안동 신안교부터 임동 광주천 합류부까지 1.14km 구간에서 서방전 개수공사를 하면서 침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옹벽을 쌓고 일부 구간에 1.5m 높이의 투명 홍수 방어벽을 세웠는데 주민들은 이 방어벽이 마을로 들어온 빗물을 빠져 나가지 못하게 물그릇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여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4m 관로와 12m 관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12m 관로가 물을 밀어내지

못한 것을 침수 원인으로 인정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막이 개선 여부를 종합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북개하천 복원은 61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신 저류조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 주민들은 광주시와 복구를 상대로 민소송을 준비할 정도로 격앙돼 있다. 홍수 방어벽과 관로가 물길을 막았다면 인제임이 분명하다. 우선은 광주시장이 정부에 건의한 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장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극한호우가 일상이 된 만큼 시간당 200mm에 대비하는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사업비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도시 전체의 배수 시스템을 새로 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돌봄국가책임제 롤모델 광주다움 통합돌봄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민선 8기 광주시의 대표 복지서비스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 복지의 성공 모델이다.

2023년 4월 도입 이후 안착해 국내외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의 원 연구 모임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 의원 8명이 지난 달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진 모델을 체험한 것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벤치마킹 차원이었다. 지금까지 전국 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47차례 벤치마킹 했고 일본케어 매니지먼트학회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34회나 연구 주제로 채택했다. 지난 달 22일에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소개할 정도로 국제적인 인지도를 넓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돌봄국가책임제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롤모델로 삼

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는 돌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주고 시민의 삶에 가까운 자치단체가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국가책임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 현장에서 통합돌봄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의견이라 정책 시행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 운영과 원스톱 응급 의료 플랫폼 구축, 공공심아린이병원 등은 당장 전국에 확산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일자리 증대와 의료비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치매와 장애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돌봄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롤모델 삼아 현장에서 시행착오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길 바란다.

無等鼓

“축구황제 펠레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1972년 대한뉴스 제833호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들려와있다. 브라질의 펠레 가산토스팀을 이끌고 국가대표 상비군과의 친선경기를 위해 방한한 것이다. 서울 동대문경기장을 가득 채운 4만 관중의 관심은 오직 펠레였다. 장내에서 파는 물건에는 ‘펠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모자는 펠레 모자, 손수건은 펠레 손수건이었고 펠레의 사진이 들어간 신문은 ‘펠레 방석’으로 불리나게 팔려나갔다.

경기가 시작되고 펠레가 우리 수비수들의 밀착마크에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자 관중석에서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야! 우리가 펠레의 묘기를 보러 왔지, 수비하는 거 보러 왔나?” 다행히(?)도 펠레는 후반에 한 골을 넣었고 경기는 산토스의 3대2 승리로 끝났다.

슈퍼스타와 해외 유명 축구클럽의 방한 경기는 꾸준히 열렸다. 펠레보다 2년 앞선 1970년에는 ‘검은 표범’ 에우제비우가 포르투갈의 벤페가 팀을 이끌고 방한했다. 에우제비우는 국가대표 팀과의 경기에서 시작 1분 만에 40m짜리 원거리골을 넣어 많

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후에도 ‘카이저’ 베켄바우어, 대통령이 된 아프리카의 축구 영웅 조지 웨아, 신의 손 마라도나, ‘외계인’ 호나우지뉴, 잉글랜드의 악동 루니, 브라질의 영웅 네이마르, 축구의 신 메시 등 수많은 영웅이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비록 친선경기지만 성실한 태도와 차원 높은 플레이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로 스타는 실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2019년 이탈리아 유벤투스 소속으로 방한했다가 단 1초도 뛰지 않고 돈

만 행진 ‘날강두’ 호날두를 제외하고는, 을 여름도 팬들의 가슴에 꽂히는 축구 쇼가 펼쳐지고 있다. 잉글랜드의 토트넘과 뉴캐슬 유나이티드 그리고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가 방한한 것이다. 3일 뉴캐슬과의 경기를 끝으로 토트넘과의 결별을 선언한 손흥민이 화제의 주인공이 됐지만 눈여겨 봐야 할 선수는 신성 라민 아말이

다. 지난해 17세의 나이에 스페인을 유로 우승으로 이끌었고 올 시즌바르셀로나가 이룬 ‘더블’의 주역이다. 아말의 등번호는 10번. 팀의 에이스를 상징하는 펠레의 번호다. /유재만 제작총괄광주 jkyou@

내한 경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민 임
광주대 명예교수

정치인들은 흔히 두 가지 얼굴을 갖는다. 겉으로는 듣기 좋은 말을 쏟아내면서 실제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 이런 정치 행태의 전형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겉으로 모두가 듣기 좋은 이상적인 말을 앞세워 민심을 사로잡고 환심을 얻으려 한다. 대개 실제 실행하기 어렵거나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한다. 대중들이 금방 환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소리는 치치만 구체적 실천은 외면하거나 책임기관에 전가하여 스스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자신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꼭 추진하고자 하는 소수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큰소리를 치거나 립서비스를 하지 않고 법안이나 예산과 같은 실질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밀어붙여 조용히 성공시킨다.

대중들이 환호하는 경우는 대개 듣기좋은 첫번 째 경

민주당 신임 대표와 정치인의 말

우다. 이익집단의 단체를 방문하거나 특정지역을 방문할 때 정치인들이 상투적으로 립서비스를 늘어 놓지만 대중들은 늘 그런 미사여구에 환호한다. 이런 립서비스는 표면적으로는 모두의 지지를 얻는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의 미이행으로 유권자의 불신과 정치에 대한 냉소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대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호남의 수혜 현장을 찾아 “호남 발전에 표나게 보답하겠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호남에 대한 특별한 지원 의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정 대표는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국가가 호남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줬나”라는 말이 가슴에 남았으며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호남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직접 북구 봉사에 참여하며 호남 수혜 지원과 향후 정책 반영을 약속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정 대표의 행보는 진정성이 느껴지고 일련한 영향 만한다. 하지만 이 발언들이 앞서 지적한 정치인들의 일반적 행태와 다를 바 없을까 하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말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과연 실제로 정책과 예산, 구체적인 지역 발전 계획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은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말로 표현할 때는 언제나 환영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말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다. 말로는 그럴듯한 약속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예산 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다시 한 번 정치적 립서비스의 반복일 뿐이다.

정청대 대표의 이번 발언이 호남 민심을 단기적으로 위로하는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민주당이 호남 덕분에 집권했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제는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과 실질적 변화로 입증해야 한다. 유권자와 시민사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책임 있게 평가해야 한다.

정치인의 말이 신뢰를 얻으려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과 일치해야 한다. “잘해주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호남에 대한 배려가 진정성 있게 실천될 때 비로소 유권자는 다시 신뢰를 보내게 될 것이다.

립서비스에 그칠 일대 대해서는 지역민의 환호를 유발하며 발언을 쏟아내고 립서비스에 그치는 일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조용히 강력한 법률과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정치 행태가 반복된다면 정치인 개개인은 물론 민주당 전체가 광주 전남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용하지만 분명히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광주 예술은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술은 시대의 거울이자 선도자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가치는 ‘연결’과 ‘융합’이다. 기술의 발전은 예술가들에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표현의 도구와 매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예술 창작의 보조 도구로 활용되거나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아트를 탄생시킬 수 있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관객에게 몰입감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며 블록체인은 예술 작품의 유통 및 소유권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융복합적 시도는 예술의 지평을 확대하고 새로운 관객층을 유입하며 예술 시장의 활성화와 산업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술과의 융합은 예술가들에게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한 창작의 자유를 선사하며 인공지능으로 대체 불가능한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은 단순히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넘어 예술이 문명에서 산업화와 연계된 시너지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술이 기술과 만나면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대중과의 소통 방식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광주가 지향하는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도시’의 청사진과도 일맥상통하다.

광주 예술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번성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예술가들의 열린 사고와 도전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과

장르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과 실험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지평을 넓혀야 한다. 기존의 틀을 깨고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둘째,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다. 예술 대학 및 관련 기관에서는 예술과 기술을 접목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실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들이 실질적인 융복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미래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다. 광주시는 융복합 예술 창작을 위한 공간, 장비, 그리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예술가들이 기술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분야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예술가들은 기술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예술가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기술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예술가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신의 재능과 창의력을 더욱 폭넓게 펼치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열린 자세를 갖춘다면 광주는 명실상부한 ‘예술과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도시’로서 전 세계에 그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